



지난 26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송정역 맞은편 골목에 폐업한지 10년 이상 지난 유흥업소들이 밀집해 있다.

/뉴스

늘어난 발길, 멈춘 풍경... 광주송정역 민낯

부끄러운 관문 上

금요일이었던 지난날 26일 오후, 광주 송정역 앞에는 서울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여행객, 주말을 맞아 수도권으로 돌아가기 위한 발걸음이 뒤섞였다. '호남의 관문'이라 불리는 광주송정역은 수많은 인파로 붐볐지만 그 수식어와 달리 역 주변 풍경은 시간에 멈춰 선 듯했다.

송정역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맞은편 거리에는 2000년대 유흥·집창촌이 밀집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허름한 건물과 뜯겨 나간 간판, 폐업한 채 방치된 건물들이 이어지며 '역세권'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풍경을 만들었다.

옛 유흥가 거리에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여전히 설치돼 있었다. 다다다다 불은 노후 건물은 20여 채에 달했고, 상당수는 폐건물 상태로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성인용 이미지가 남아 있는 간판과 관리되지 않은 건물들은 이 일대가 우범지대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했다. 더 이상 오가는 사람도 없는 을씨년스러운 골목길은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점령했다.

이 일대는 과거 송정동 '1003번지'로 불리던 대표적인 유흥가였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업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이듬해 화재로 여성 2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쇠퇴했다. 현재 유흥업소는 자취를 감췄지만 공간 정비는 이뤄지지 않은 채 슬럼화됐다.

송정역을 끼고 줄지어 늘어선 노후한 여인숙 건물들도 역 주변의 낙후된 이미지를 더했다. 해가 저물자 여인숙 앞에는 할머니들이 하나둘 나와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벌였다. 이른바 '여관 바리'라고 불리는 불법 성매매가 여전히

옛 집창촌·노후 여인숙... 낙후·우범 첫인상 훼손
'군 단위 읍내 분위기' 광역시 역세권 상권 맞나
이용객 급증 속 환경은 제자리 "개선 서둘러야"

이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황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수많은 시민들은 그 모습을 힐끔거리며 고개를 돌렸고, 여행 가방을 끌던 외국인들은 주변을 둘러본 뒤 발걸음을 재촉했다. 광주의 첫 인상을 마주하는 역세권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다.

송정동에서 한평생 살아왔다는 김모(81)씨는 "송정역은 서울과 광주, 목포를 잇는 교통의 요지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가는데도 역 앞에는 예전 집창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누가 광주에 좋은 인상을 갖겠느냐"고 말했다.

광주송정역은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 2015년 4월 이후 광주역을 대신해 호남의 관문이자 고속철도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듬해 수서발 SRT가 개통되면서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14년 3327명에서 현재 1만3000명 이상으로 늘었고, 주말에는 2만5000명 안팎이 역을 이용한다.

2030년이면 하루 이용객은 3만7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 주변 상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역 앞 메인 상권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폭 10m 일방통행 도로를 끼고 상가가 늘어선 '도란도란 송정길'에는 '임대'를 내건 빈 점포들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단층 건물의 소규모 점포가 대부분으로, 국밥집과 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등이 영업 중이다. 그 모습은 광역시 중심 역

세권이라기보다 군 단위 읍내 상권을 떠올리게 했다.

한 상인은 "여기를 역세권이라고 부르는 건 얼토당토않다. 그동안 다녔던 단골들과 광산구청 직원들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지 않느냐"며 "타지에서 온 방문객이나 지역 시민들이 뭐가 볼 게 있다고 여길 찾아오겠는가"라고 했다.

맞은편 '1913 송정역시장' 역시 일부 인기 점포를 제외하면 상점 3분의 1가량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 임대 안내문과 홍보전단지만 붙어 있는 점포도 적지 않았다.

전북 전주 고향집을 가기 위해 송정역을 찾은 대학생 유모(26)씨는 "역 주변에 시간을 보낼 만한 공간이나 볼거리가 너무 없다"며 "처음 열차를 타고 광주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낙후된 모습에 적잖이 놀랐다"고 했다.

또 다른 대학생 이모(23)씨는 "서울 등 타지 친구들이 역에 내려 광주의 첫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할 때마다 부끄럽다"며 "다른 지역 역사에 비해 규모도 작고 주변 환경도 많이 뒤쳐진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광주송정역 이용객은 10년 전보다 크게 늘고 관문으로서 역할을 커졌지만, 도시의 첫 인상을 책임지는 역 주변 공간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지역민들의 불만이 꾸준히 있다.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자칫 낙후·우범 도시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대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동취재부

K-그리드 실현... 나주 '차세대 고전력반도체 거점' 시동 건다

1조2000억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을 품은 전남 나주시가 차세대 전력망의 핵심 부품인 고전력반도체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동을 건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국비 50억원을 투입해 한국에너지공단(KENTECH·켄텍)에 대규모 고전력반도체 가속 수명 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 국정과제인 차세대 분산 전력망(K-그리드)에 적용할 고전력반도체의 장시간 수명과 신뢰성을 검증할 국내 최초의 대규모 시험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기간은 12월까지 1년이며 반도체 관련 기업·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력반도체는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데이터센터, 국가 전력망의 전력 변환과 제어를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다.

특히 고전력 환경에서 장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상용화의 관건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고전력반도체의 장기 수명을 대량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연구기관에 관련 장비가 구축돼 있지만 대부분 16채널 이하 소규모 설비로 대량 시험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상용제품을 신속하게 검증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에 켄텍에 구축하는 인프라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켄텍에는 'Power Cycling Test(성능 열화 평가)', 'Dynamic Stress Test(동

적 전압 피로도 평가)' 등 고전력반도체 수명 평가의 핵심 장비가 도입된다.

먼저 Power Cycling Test 장비는 총 6대가 구축되며, 최대 96채널 이상에서 동시에 시험이 가능하다. 반복적인 전력·온도 변화를 가해 반도체 내부의 열 팽창·수축에 따른 파괴를 단기간에 유도함으로써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수명을 예측한다. 장비 구축 예산만 30억원에 달한다.

Dynamic Stress Test 장비는 게이트·고전압·고온 고습 환경에서 전력반도체의 내구성을 평가하는 장비로, 240채널 이상 동시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게이트 산화막, SiC(실리콘카바이드) 소재, 접합부 신뢰성을 각각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차세대 전력망용 반도체는 소자 성능만큼이나 수명 데이터가 중요하다"며 "이번 인프라는 기업의 상용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장비 구축에 그치지 않는다. 전압·전류·패키지 조건은 물론, 온도·습도 환경까지 고려한 기업 맞춤형 시험 지원을 병행한다.

여기에 고전력반도체 가속 수명 평가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제품 신뢰성 검증과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연구개발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전력반도체 전주 생태계가 나주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이러한 기대감은 지난해 12월 나주에서 열린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송년 행사에서 표출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고전력반도체 시험 인프라 설치 국비 50억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은 나주가 전력반도체 중심지로 도약하는 신호탄"이라며 "기업의 연구·실증·생산이 윈윈으로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전력반도체 시험·연구 인프라를 집적하는 동시에 노안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 입주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나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점도 고성능 전력반도체 수요 확대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시험 인프라 구축이 국내 전력반도체 산업의 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단순 제조 경쟁을 넘어 신뢰성과 수명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정부·지자체·대학·산업계가 맞물린 나주의 실험이 차세대 분산 전력망과 K-그리드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주시·전남도, 남도학숙 입사생 725명 모집

서울·인천·경기지역 대학(원)생...1월 2~16일 원서 접수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이사장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도 남도학숙 신규 입사생 725명을 선발한다. 선발 인원은 광주 362명, 전남 361명이며, 장애인 2명은 시도 구분 없이 선발한다. 학숙별로는 제1남도학숙(동작구 소재) 423명, 제2남도학숙(은평구 소재) 302명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곳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선발 대상은 공고일인 12월 31일 기준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광주시 또는 전남도 이면서 서울·인천·경기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다. 원서 접수는

2026년 1월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원서는 남도학숙 누리집(https://www.ndhs.or.kr)을 통해 접수하거나, 보호자 주민등록지에 따라 광주시나 전남도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선발평가는 학교성적 30%,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생활정도 70%를 반영하며, 대학 신입생의 경우는 생활정도를 100% 반영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두 자녀 이상 자녀 가구, 보훈대상자 등은 가점하며 올해부터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의 자녀에게도 가점 5점을 부

여한다.

최종 입사생은 2026년 2월 3일 남도학숙 누리집에 발표하며, 입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 예비자로 공개되고 결원이 발생하면 예비자 순서대로 입사 자격을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062-613-3692-3693), 전남도(061-286-3422), 전남 각 시·군에 문의하거나 남도학숙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도학숙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1994년(제1학숙)과 2018년(제2학숙) 공동 설립해 수도권에서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들과 그 학부모의 주거·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1454명(제1학숙 850명, 제2학숙 604명)의 대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오관철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